

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 
심의 · 의결

안전번호 제2023-013-163호  
안 전 명 개인정보보호 처리실태 개선 권고에 관한 건  
피 심 인 의료법인 (법인등록번호 : )  
대표자  
의결연월일 2023. 7. 26.

주 문

1. 피심인 산하 종합병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.

가.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PC 등을  
설치한 장소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·운영하여 개인정보  
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

나. 상기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

# 이 유

## 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( )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6930호, 이하 “보호법”이라 함)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인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 < 일반현황 >

| 의료법인명<br>(법인등록번호) | 병원명*<br>(사업자등록번호) | 설립일자 | 병원<br>대표자 | 상시<br>종업원수 | 자본금<br>(억원) | 매출액<br>(‘21년, 억원)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## II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관련 수사과정에서 환자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피심인 산하 종합병원 현장조사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 1. 개인정보 유출 개요

#### 가. 유출 규모 및 경위

- **(유출 규모)** 피심인 산하 병원에서 '19.1월부터 '19.12월까지 2,366명의 환자정보\*가 유출되었고, 이중 진료과와 처방코드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.

\* 성명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나이, 성별, 처방일, 처방의, **진료과**, 처방내역(수량, 용량, 횟수, 일수, **처방코드**)

- **(유출 경위)** 제약사 직원이 의사 대기실에 로그인되어 있는 직원전용 PC에서 환자정보를 촬영하거나 다운로드 후 외부로 전송하였다.

## 나. 유출 경과 및 대응

| 일 시                | 유출 인지·대응 내용 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'21. 2월 ~ 5월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사항 비공개 공문을 접수 후 인지 및 미신고</li> <li>○ 경찰청의 1차 참고인(정보보호·시스템 담당 등) 조사</li> </ul> |
| '21.10월 ~ 11월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찰청의 2차 참고인(병원장) 조사</li> </ul>  |
| '21.12.23 ~ 12.31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찰청 수사 결과 통보</li> </ul>   |
| '21.12.27.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출 신고</li> </ul>  |
| '22. 2. 9. ~ 2.18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출 파일 확인 및 수령(경찰청 → 개인정보위 → 병원)</li> </ul>  |
| '22. 2.15.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출 통지(문자, 홈페이지 게시 등)</li> </ul>   |

## 2. 행위사실

### ○ 물리적 공간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

- 피심인 산하 병원은 의사 대기실 출입통제를 소홀히 하여 로그인되어 있던 직원전용 PC를 통해 제약사 직원이 환자 정보를 외부로 전송한 사실이 있다.

## 3. 위법성 판단

- 개인정보가 유출된 장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이하 '고시')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·운영하지 않은 행위가 보호법 제23조제2항·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 및 고시 제1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,

- 민감정보 등을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.

### Ⅲ. 개선권고

피심인 산하 종합병원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·운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.

- ①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PC 등을 설치한 장소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·운영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
- ② 상기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

### Ⅳ. 결론

피심인 산하 종합병원에 대한 보호법 제61조(의견제시 및 개선권고)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3년 7월 26일

위 원 장     고 학 수    (서 명)

부위원장     최 장 혁    (서 명)

위     원     강 정 화    (서 명)

위     원     고 성 학    (서 명)

위     원     백 대 용    (서 명)

위     원     서 종 식    (서 명)

위     원     이 희 정    (서 명)

위     원     지 성 우    (서 명)